

소상공인 살리는 방역체계 전환 시급하다



농협금융, 대구 청소년 위해 방역용품 후원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용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농협금융이 대구행복한미래재단에 기부한 방역용품은 1500만원 상당으로 이 용품들은 대구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왼쪽)이 배기정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이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현대백화점, 저소득층 노인들에 '명절선물키트'

현대백화점점면세점은 추석(9월 21일)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명절 선물 키트' 250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절 선물 키트'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와 중구 그리고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250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NS홈쇼핑,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지원 나서

NS홈쇼핑은 전날 판교 본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사회적 가치생산물 발굴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왼쪽)와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S홈쇼핑

인사

-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선행연구과장 김기훈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기팀장 한영일
- ◆관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감사관 이석훈 △심사국장 이종욱
- ◆광주시 ◇2급 승진 △의회 사무처장 박남주 ◇3급 승진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재식 △서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김순옥 ◇3급 전보 △환경생태국장 김석웅 ◇4급 전보 △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 △여성가족과장 정종임 △도시계획과장 신재욱
- ◆연합뉴스TV △전무이사 고승일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추승호
- ◆폴리뉴스 △편집국장 석남식 △산업국장 최환금 △전략기획실장 한유성

부음

- ▲송곡선씨 별세, 김석원(IBK투자증권 총무부장)씨 모친상 = 15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8일 오전. 031-910-7444
- ▲박영희씨 별세, 김성진(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씨 모친상, 박철호(뮤지컬배우)씨 장모상 = 16일 오전 0시50분, 신대인장례식장 1층 무궁화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장지 전북 정읍시 신대인읍 우령리 선영. 063-571-6300



기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5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12%까지 떨어졌다. 이 비중은 자영업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직원을 둔 자영업자

는 152만명에서 127만4000명으로 24만6000명이 줄어들었지만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등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15만5000명으로 2003년 통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데 이들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이 증가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했더니 전체의 91.4%가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63%는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적인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효과는 점점 떨어진다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초 1차 대유행때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량이 33% 줄었지만 4차 대유행 이후에는 0.57%만 감소했다. 9월 3일 발표한 새로운 방역대책에서도 일부 소상공인 현장의 요구

가 반영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실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있는 스타디카페의 경우 개인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장소로 고객(학생)은 12시까지 이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카페내에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취식 금지 등으로 전파위험이 사실상 없는데 말이다. 이런데도 음식점과 같은 일률적인 영업제한을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게 스타디카페 점주들의 말이다.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 시대를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도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처럼 '위드 코로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명령 중심의 일률적인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역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빼주고, 소상공인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차까지 백신접종을 끝내고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국민들도, 소상공인들도 당장 불편하고 어렵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함께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를 끝낼 수 없다면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를 조속히 전환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 일반인 4000명 참가

SW개발문화 저변 확대 위해 올해 일반인들 대상 첫 시행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SW) 개발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한 알고리즘 경진대회에 일반인 4000여명이 참가했다. 코딩과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일반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2021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자가검진키트를 통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행사에 참여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구개발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



현대모비스 본사 사옥에 위치한 M.Lounge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1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진대회' 우승자들이 전장BU장인 성기형 부사장(왼쪽)으로부터 상장과 부상을 전달받고 있다.

로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일반인까지 문화를 개방한 것이다.

지난 한 달여간 예선과 본선이 진

행된 이 대회는 일반인 400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본선 진출자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으로 구성돼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4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제한 시간내 문제를 풀고 소스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4000여명이 참가한 1차 예선에 이어, 예선 상위 50명에게 본선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본선 최종 우승자들에게는 1등(1명) 500만원 등 총 상금 1억원이 전달됐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번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일반인 대상으로 처음 확대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애경산업, '자원순환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

플라스틱·금속사용 축소 등 자원순환사회 형성 기여 인정

생활유통기업 애경산업이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과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자원순환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순환을 위한 자발적 참여 ▲재활용 용이 구조의 적용을 통한 자원순환 ▲플라스틱 및 금속 사용의 축소를 통한 자원 및 탄소 사용량



애경산업이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 유공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애경 디자인센터 앞 직원들의 모습. /애경산업

축소 ▲재활용(PCR),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을 통한 자원순환 ▲재활용 어려움을 보통 및 우수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등 자원순환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았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포장재와 환경을 배려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며 "나아가 소비자가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제품 안전성', '친환경', '자원의 선순환'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품 설계를 추진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품질안전·친환경·녹색 영향평가 등 엄정한 기준을 거쳐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개선활동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플라스틱 재활용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